

지금은 '트로트 천하' ... 광주·전남 국악계 출신들 맹활약

요즘 대한민국은 트로트 천하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트로트를 흥얼거리고, 관련 프로그램의 인기는 상종가다. '트로트 스타 탄생'의 주인공들 중 광주·전남과 인연이 있는 이들이 많아 화제다. 특히 '소리의 본향'으로 불리는 남도의 맥을 이어 판소리를 공부한 국악계 출신들의 활약이 눈에 띈다.

TV 조선 '내일은 미스트롯'의 1대, 2대 진(眞)은 모두 광주·전남과 인연이 깊다.

최근 막을 내린 시즌 2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한 양지은(31)은 제주 출신이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전남도무형문화재 판소리 '흥보가' 예능보유자 김순자 선생에게 소리를 배우기 위해 일주일에 3일씩 목포를 찾았다. 이후 전남대 국악과에 수석 입학했고 2014년 전남도 무형문화재 '흥보가' 이수 시험을 통과, 유일한 제주 출신 '흥보가' 이수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당초 준결승전 직전 탈락했지만 다른 출연자가 학교폭력 논란으로 하차하면서 다시 출연, 영광을 안았다.

1대 진 송가인(36)은 진도 출신으로 광주예고 3학년이던 2004년 제49회 호남예술제에 참가해 국

'미스트롯' 1대 진 송가인 진도 출신
2대 진 양지은 전남대 국악과 수석입학
10살 소녀 김태연 임방울국악제 금상
'트롯 전국제전' 7위 최향 전남대 졸업
'팬텀싱어3' 고영열 광주예고 국악 전공
각종 경연에서 국악 전공자들 초강세
국악과 인기·판소리 배우는 사람 늘어

악 판소리 고등부 최고상을 수상했다. 독집 음반 발매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송가인은 보헤 앞 새주 광고 모델로 활약하고 있으며 이달 말에는 KBS2 '트롯 매직유랑단'에 얼굴을 비출 예정이다. 그녀의 진도 자택은 진도의 효자 관광상품이 됐다.

'내일은 미스트롯 2'는 1~4위 수상자가 모두 국악인 출신이라는 점에서도 화제가 됐다. 이 중 4위를 차지한 '10살 소녀' 김태연은 전북 부안 태생이지만, 광주예고 출신으로 보성소리축제로서 대통령



송가인 양지은 김태연 최향 고영열

상을 수상한 박정아 명인에게 소리를 배웠으며 임방울국악제에서 초등부 금상을 수상했다. 프로그램에서는 김 양이 앞으로 투병중인 박 명인에게 손편지를 보내는 감동적인 장면이 방영되기도 했다.

지난 2월 인기리에 막을 내린 KBS2 '트롯 전국제전'에서는 전남대 의류학과 졸업생인 최향(37)이 7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익산 출신인 최 씨는 전남대 재학 당시 생활과학대 기타소모임에서 보컬로 활동했으며 2017년 'G-POP 페스티

벌', '제2회 남도전국가요제' 대상 등 각종 노래대회를 휩쓴 실력파다.

트로트는 아니지만 크로스오버 중창 경연 프로그램인 JTBC '팬텀싱어3'에 출연한 고영열도 국악 전공자다. 광주예고 출신으로 한양대를 졸업한 그는 준우승 팀 '라비던스' 멤버로, 최근 국내 대표 클래식 매니지먼트사 '크레디아'와 전속 계약을 했으며 현재 '팬텀싱어 울스타전'에 출연중이다.

최근 각종 경연 프로그램에서 국악 전공자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광주예고 국악과 합격자가 13명(2019), 16명(2020), 17명(2021)으로 증가했으며 트로트에 대한 관심으로 학원에서 판소리를 배우는 사람도 늘고 있다.

수많은 판소리 명인을 배출하며 국악계를 견인해 온 광주·전남의 판소리 역사는 트로트 뿐 아니라, 전통 판소리 분야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적벽가' 보유자 송순섭(고흥)·윤진철(목포), '춘향가'의 신영희(진도) 명창을 비롯해 '심청가' 보유자 고(故)성창순, '흥보가' 보유자 고(故)박송희 명창도 각각 광주와 회소 출신이다.

젊은 소리꾼의 활약도 눈부시다. '국악스타' 박애리는 목포 출신이고 국립창극단의 간판스타로 떠오른 젊은 소리꾼 김준수·이소연은 각각 강진과 광주 출신이다. 김준수는 KBS 2 '불후의 명곡' tvN '너의 목소리가 보여' 등에 출연했으며 전남대 국악과를 거쳐 한국종합예술학교에서 수학한 이소연은 '변강쇠 집 적고, 용녀' 등 창극단 대표작의 주역을 맡고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LH·국토부 조사...투기 의심 7명 추가 총 20명

정총리 "의혹 살살이 뒤지겠다"
청와대 조사... "의심사례 없어"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8개 지구에서의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토지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투기 의심 직원 13명 외에 7명이 추가로 적발된 것이다.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된 20명은 모두 LH 직원이다. <관련기사 3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전 직원(1만4천348

명) 중 제때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1만4319명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6곳,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2곳의 토지거래를 조사했다.

이번에 확인된 투기 의심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광명·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시 창릉 2명, 남양주시 왕송, 과천시 과천, 하남시 교산 각 1명이었다. 투기 의심 사례는 대부분 3기 신도시 지구 지정 공고일(2018년 12월) 기준으로 2년 전부터의 기간에 집중됐다. 직급별로 보면 2급 3명, 3급 9명, 4급 6명, 기타 2명이었다.

합동조사단은 이들 20명에 대해 정부 합동특별 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하겠다"며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이력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투기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의심 사례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정 수석은 "1차로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연립뉴스

부영 특혜 의혹에...한전공대특별법 3월국회도 어렵다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 특별법'이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의결되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의 반대와 함께 '부영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3월 국회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한전공대 특별법은 이날 법

안 소위원회 심의에서 논의됐지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현재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반대가 심하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사회적으로 기부 받아서, 대학에 기부를 해서 좋은 대학이 생긴다면 칭찬 받아야 될 일임이 틀림 없지만, 그 부지 외의 땅에 어떤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부

되었다는 의문점이 남는다"고 전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같은 당 이철규 의원은 "골프장 부지하고 아파트 부지는 시세차익이 몇 배가 나는데, 이것은 이권을 챙긴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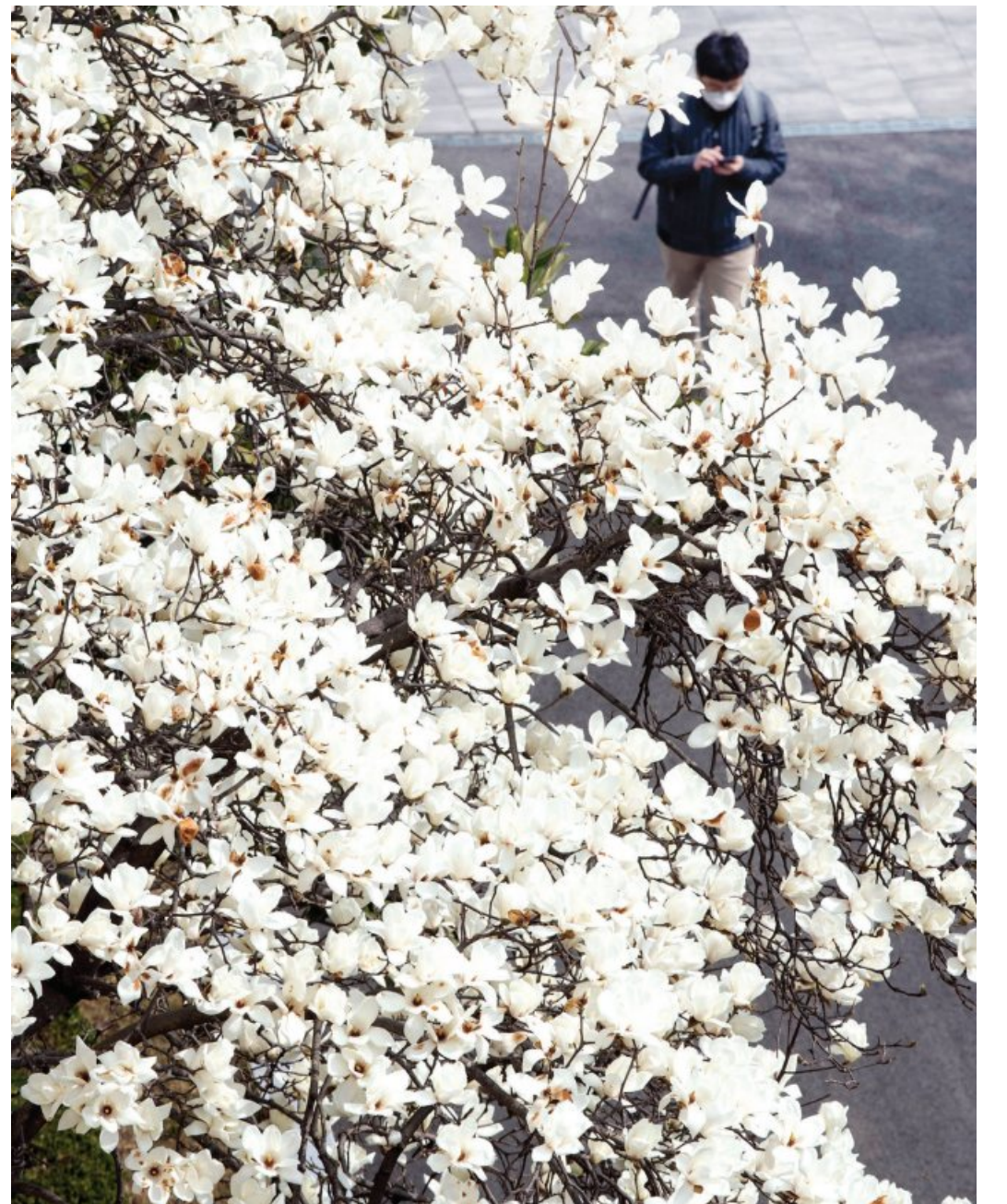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용민(광주 광산구 갑) 국회의원은 이날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더는 미룰 수가 없는 상황에 맞닥뜨렸다"며 "한전공대 설립은 국가적으로 시급한 현안 사업임에도 5개월이 넘도록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법 체제에서 교사(校舍·학교 건물) 준공 지연에 따른 대학설립인가 적기 취득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눈앞으로 다가온 5·6월 내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발표 등 학교 설립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선 한전공대법의 조속한 제정이 선결과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교육감 선거 입지자들 빨리진 발걸음 ▶3면

책 세상 - '세계를 흥 넘치게 하라' ▶14·15면

첫 승 올린 광주 FC '내일 전복 꺾는다' ▶18면



하얀 목련이 필 때면... 11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캠퍼스에 목련이 활짝 피었다. 광주지역 낮 최고기온이 19도를 기록하며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가운데 학생이 교정을 걷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IOPE
RETINOL EXPERT
RETINOL O.1%
NEW

2weeks
고함 고함 세상이 눈이 뜨기 전
잡아 세게 울음 안아주어야 한다
IOPE LAB

슈퍼레티놀

단 2주 만에 주름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을,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IOPE

만 40~59세 성인 여성 대상 | 2019.09.16~10.17 | 12주간(12주) 임상 연구 결과
고객상담실 080-023-5454 | www.iope.com